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362호 【루계 제24410호】 주제102(2013) 년 12월 28일 (로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 조선인민군 초병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제3168군부대, 제695군부대 군인들의 격술훈련을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 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 민군 초병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제3168 군 부 대 , 제 695군 부 대 군인들의 격술훈련을 보시 였다.

최 룡 해 동 지 , 김 원 홍 동지, 김경옥동지, 황병서 동지가 훈련을 함께 보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훈련을 보여드리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군인들은 끝 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 있었다.

경 애 하 는 최 고 사 령 관 **김정은**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대회참가자들은 자기들과 함께 훈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격정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을 누르지 못하면서 폭풍같은 안고 멸적의 투지와 용맹을 키워온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만세!》의 환호를 러쳐올리며 군인들은 어렵고 복잡한 전투조법

군인들이 번개같이 몸을 날리며 받들고 훈련으로 밤을 밝히고 새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들과 동작들을 정확하고도 훌륭히 《적》들을 쓸어버리고 무서운 타격 을 맞으며 펄펄 나는 일당백의 싸 훈련장은 전투적기백으로 불도가 수행함으로써 맡겨진 임무를 자립 력을 보여줄 때마다 판람자들은 환 움군들로 자라난 군인들의 멸적의 훈련에 참가한 군인들은 경애하는 었다.

> 으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 충정의 결의를 다지였다. 책동을 짓부시며 나라의 존엄과

선군령장 김정은동지의 손길아래 천하무적의 강군 으로 더욱 억세여지고있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위용 을 힘있게 떨치였다.

민족의 자주권을 견결히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훈련을 보시고 군인들이 사회주의 조국을 철옹성같이 수호할 수 있게 튼튼히 준비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 하시면서 그들의 훈련성과 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하 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 정신, 자폭정신을 절대불 변의 신념으로 간직한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 인 조선인민군이 있기에 주체혁명위업은 필승불패 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 애 하 는 최 고 사 령 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 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

당의 훈련제일주의방침을 높이 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조선인민군 초병대회 참가자들과 기상이 나래치는 훈련은 판람자들 최고사령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 의도를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백두 의 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 군인들은 훈련을 통하여 무비의 며 위대한 당기가 휘날리는 사회주 담력과 강철의 의지,탁월한 지략 의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지켜갈

본사정치보도반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초병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 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방위원회 제 1 위 원 장 이 시 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경 애 하 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 민군 초병대회 참가자들 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 시였다.

최룡해동지,김원홍동 지,김경옥동지,황병서 동지가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으로 하여 참 가자들의 가슴은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하 최 고 사 령 관 김정은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참 가 자 들 은 우 렁 찬 《만세!》의 환호를 올 리 면 서 주 체 혁 명 위업완성을 위한 투쟁 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 시 는 경 애 하 는 최 고 사 령 관 동 지 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열 광적으로 환영하 였다.

하 는 최 고 사 령 관 동 지 께 서 열 광 의 환 호 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을 저어주 시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서 위대한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실데 대한 사상리론을 제시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발표하신 론문 《위대한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나가실 철의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에는 주체조선 의 100년사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존함과 혁명업적으로 빛나 는 가장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력사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후손, 장군님 대한 사상은 주체혁명위업계승의 한 길로 나아갈 열의에 넘쳐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몸부림치던 피눈물의 12월에 발표 하신 로작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생애와 혁명업적은 천추만 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우리 레모시고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천만군민이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유훈관철로 수놓아온 전체 인민군장 병들과 인민들에게 보내주신 감사문 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더욱 숭엄 하게 꾸리며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의지를 선언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 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모신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 궁전이 새롭게 훌륭히 꾸려지게 되

· 수령영생위업의 새로운 장이 펼쳐 지는 속에 만수대언덕과 김일성군사 종합대학,만수대창작사,인민 무력부, 강계시와 함흥시 등에 대원수님들의 동상들과 모자이크 태양상, 벽화들을 모시였으며 영생탑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 과 혁명대오를 백방으로 강화하며 강 성국가건설을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사상리론활동을 정력 적으로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 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강성국가 이라고 천명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라는 대진군령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 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 ₩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 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제시 하시고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며 그이의 구상 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갈데 대

하여 강조하시였다. 사회과학원창립 60돐과 올해의 선군절을 맞으며 로작 《우리의 사회 과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김정일동지 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를 발표하시여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 을 실현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을 관철하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 가야 할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 로작 들에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위한 사업을 심화시킴으로써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존함으로 빛내이며 령도자를 중심으 로 당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다져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사명과 역할 을 다할데 대한 사상리론을 제시하

시였다. 올해 1월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 담아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책관철의 결사대, 척후대로서의 역할 을 훌륭히 수행하여 당의 전투적위 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강성국가건 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하는데

맞으며 성스러운 복무의 길에 청춘도 가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중앙위원 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와 결론에서 제시하신 전략적로선은 반미대결전과 사회주 의강성국가건설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 조국건설을 다그치자》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 신 애국주의의 본질적내용과 생활 력, 그 구현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 들을 밝히시여 우리 군대와 인민에 게 삶과 투쟁의 교과서, 사상정신적

량식을 안겨주시였다.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공화국창건 65돐, 전승 60돐이 되는 올해의 투 쟁구호와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 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방략을 천명 하시였으며 3월 전국경공업대회에서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포성을 크게 울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진하

는 선군혁명대오의 필승의 기상을

여

고조격전장마다에서 새로운 기적 과 위훈이 창조되게 하시였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일대 전성 기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 게 력사적서한 《당의 주체적건축사 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자》를 보내주 시여 로동당시대의 위대한 대건설 강령을 마련해주시였다.

50돐을 맞으며 발표하신 로작 《력사적인 창성련석회의정신을 구현하여 모든 군을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자》는 군을 강화하고 군의 역할을 높이는 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일군들과 근로자들 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 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 《과 학기술발전에서 전환을 일으켜 강 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 명소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 으키자》 등에서 두뇌전, 실력전을 벌려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며 조국 의 영예와 민족의 슬기를 만방에 떨 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조국땅의 면모를 일신시키시려는

명 사 적 표 식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회 참 가 자 들 을 비 롯 한 전체 초병들은 우리 당 의 귀중한 혁명동지, 혁명전우들이라고 하시 면서 당의 믿음을 언제 나 잊지 말고 선군혁명 의 길에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 하리라는 기대와 확신 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 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김정은 결사옹위!》 구호의 함성이 터져 올라 장내를 진감하

고마움에 격정을 누르

의리를 지니고 찬바람,눈비를 다.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대회참. 사수해갈 충정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도하는 불멸의 대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운 주체100년대진군길에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였다

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돐 을 맞이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대원수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우리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진로를 밝혀주시고 강성번영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희세의 천출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에 넘쳐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할 확고한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진군을 령도하시면서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 활동으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최후승리의 표대를 마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2년간 중요대회들에서 하신 연설들과 력사 적서한, 론문들을 비롯한 위대한 명저들은 주체혁명위업의 중대한 력사적전환의 시기에 혁명과 건설에 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 한 해답을 주는 불멸의 대강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이 걸 어온 력사는 우리 혁명이 백두에 서 개척되여 오늘까지 승리하여온 영광넘친 로정이며 바로 이 길이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계 속 걸어나가야 할 영원한 승리의

길, 조국번영의 길이다. 》

이라는 사상이 밝혀져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세 의 전사,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할데 더 백배해주었다.

온 나라가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들을 건립하였다.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관철

비서대회를 지도하시면서 하신 력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 적인 결론은 전당의 세포들이 당정 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로작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력사적인 호소문을 발표하시여 대

지방당 및 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

와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며 산 업미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사상이 밝혀진 로작들을 받아안은 일군들 과 근로자들은 격정을 금치 못하며 새로운 위훈창조에 한결같이 떨쳐 나섰다.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 창립 65돐에 즈음하여 학원교직원,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학생들에게 보내신 서한과 조선소년 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 련합단체대회에서 하신 축하연설에는 혁명의 계승자들, 새 세대들이 미래 의 주인공들로 억세게 준비할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어려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들 은 당과 혁명대오를 백방으로 강화 하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부강조국 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우리 군대 와 인민이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상리론적무기로 되고있다.

천만군민은 조국과 인민의 앞길에 최후승리를 위한 리정표를 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따라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침으 로써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리상과 념원인 주체의 사회주의강성 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울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정 은 통 지 께 서

## 모범적인 강연강사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과 근로 자들을 강성국가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 키는데 기여한 선군시대 모범강연강사들에 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남포경공업전문학교 교장 림혜순은 수십 년간 강연강사로 활동하면서 대상의 특성 과 준비정도에 맞게 강연을 참신하고 설득 력있게 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위훈창 조에로 고무하였다.

당초급선전일군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 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해주제2사범대학

강좌장 백순일은 수많은 자료들을 만들어 놓고 강연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강원도도매상업관리처 과장 장덕호는 강 연강사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고 중요대상건 설장들과 협동농장들에서 화선식강연선전 활동을 적극 벌려 대중의 찬사를 받고있다. 평성사범대학 강좌장 안재명, 사리원시

직매점 본점 점장 전명화는 오랜 기간 맡 은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강연활동을 활발히 벌려 《우 리 강연강사》로 불리우고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과 김정일애국

주의교양자료, 상식자료 등을 가지고 강연 을 잘하고있는 삼수혁명사적지관리소 소장 리화, 청진시 포항구역인민위원회 부장 안 성일도 대중이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 히 무장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추동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격정속에 받아안은 선군시대 모범강연강사 들은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일군들과 근 로자들을 강성국가건설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더 잘하려는 열의에 넘쳐있다.

##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전하는 혁명사적표

절 세 위

식비가 2.8비날론련합기업소 와 흥남구두공장, 장자산종합식 료공장에 건립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 사적표식비가 2.8비날론련합 기업소에 세워졌다.

혁명사적표식비에는 주체 100(2011)년 12월 2.8비 날론련합기업소 급수침전지 본사기자 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 령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을 결사 관철할 일념으로 인민군군인들

0

이 단 6일동안에 수만m³의 감 탓을 파내고 보수정리한 이곳을 잘 관리하여 은이 나게 할데 대 하여 가르쳐주신 사적내용이 새 겨져있다.

리

흥남구두공장에 건립된 혁명 사적표식비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100(2011) 년 12월 공장을 현지지도하시 면서 생산을 늘이기 위한 방향 업적을 전하고있다.

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99(2010)년 7월 공장을 찾으시여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며 종 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문제를 비롯하여 인민들 에게 질좋은 식료품을 많이 생산 공급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 내용을 담은 혁명사적표식비가 장자산종

합식료공장에 건립되였다.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해갈 열의드높이 해당 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혁명사적표식비를 훌륭히 건립 하는데 충정을 바치였다.

여러 단위에 혁명사적표식비 를 건립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 한 뜻을 빛나게 실현해나갈 우 리 인민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의 표시로 된다.

혁명사적표식비제막식이 해 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3] 주체102 (2013) 년 12월 28일 (토요일)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최고사령관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돐에 즈음하여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들을 시찰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과정을 관찰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101(2012)년 12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354군부대 비행사들을 만나 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101(2012)년 1월



조선인민군 해군 제 1 5 8 군부대를 시찰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101(2012)년 2월



조선인민군 제4302군부대관하 감나무중대를 시찰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101(2012)년 8월



선 군 의 산 악 오 성 산 의 초 소 들 을 시 찰 하 시 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6월



조 선 인 민 군 제 4 0 5 군 부 대 를 시 찰 하 시 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5월



조선인민군 제1973군부대관하 2대대를 시찰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3월



인민군대에서 건설하고있는 대성산종합병원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1월



인민군대에서 제작한 문화기재들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3월



조 선 인 민 군 제 3 2 3 군 부 대 를 시 찰 하 시 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2월

에 생생하다.

亳 정

조선의 12월은 뜨겁다. 눈보라일고 추위가 사나와도 위대한 장군복이 대를 이어 내린 민 족사적대행운을 누리는 행복으로 온

강산이 설레인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2월 30일은 12월 24일 과 함께 우리 혁명사에 대경사의 날

세월의 년륜은 어느덧 두돌기를 긋고 천백배로 뭉친 우리의 선군대 오는 승리만을 떨치며 노도와 같이 진군해왔다.

로 빛나고있다.

이 거세찬 대하가 시대와 력사에 새긴 불멸할 이름은 무엇인가. 최고사령관과 전우!

우리는 이 긍지높은 부름으로 걸 어온 길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 인 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실현될 휘황 찬란한 미래를 내다본다.

총대는 강하다. 허나 그보다 더 강한것은 그 총대에 흐르는 인간의 뜨거운 피와 정이다. 온 세계에 전설의 군대로 영광떨 치는 백두산혁명강군은 최고사령관

과 한피줄을 이은 전우대군, 동지의

강군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 4 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에게 정을 담아 하신 말씀 이 귀전을 울린다.

내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동무 들과 함께 있을 기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였는가. 이 김정은이 전우부자, 동지부자다. 이 동무들이 다 우리 당과 사상과 뜻 을 같이하고 숨결을 같이하며 당의 의도대로 싸움준비를 잘하여 앞으로 조국통일대전에서 한몫 하겠구나 하 는 생각을 하니 더없이 미덥고 더없 이 기뻤다. …

전우부자, 동지부자!

천만의 전우들과 팔을 끼고 어깨 를 겯고 만난을 헤쳐오신 그이의 가 장 큰 희열이 여기에 있고 피눈물의 바다에서 솟구쳐올라 위대한 승리와 기적을 창조한 그 2년의 고귀한 총 화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많은 동지, 전우들이 있기에 나는 배십이 든든하며 혁명승리에 대하여 확신하고있습니다.》

전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마음 속에 불덩이처럼 간직된 부름이다. 그이께서 제일 사랑하시고 그이의 마음속에 언제나 울리는 부름이다. 정녕 어느 한시도 전우를 잊은

이 없으시였다. 조국의 앞길에 엄혹한 시련이 가로놓일 때 제일먼저 찾으신것이 전우였고 장차 가야 할 혁명의 먼길

천만의 전사들과 인민들에게 제일 하고싶으신 자신의 말씀도 이 한마 디에 담으시였다.

3년전에 떠나간 조명록동지의 서거 일을 잊지 않으시고 인민무력부혁명 사적관의 《최고사령관과 전우관》을 찾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이 가슴을 세차게 두드린다.

총대전우들과 어깨를 겯고 사생 결단의 전장을 누비시던 위대한 수령님을 생각하시며 한걸음, 선군의 폭풍전역을 전우들과 함께 헤쳐 가시던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시며 또 한걸음, 그렇게 한방, 또 한방을 지나시는 우리 원수님의 심중은 얼 마나 뜨거우시였으라.

돌이켜보면 조선혁명은 수령은 전 우를 찾고 전우들은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승리의 진격로를 피로써 열어온 성스러운 위업이다.

걸음걸음 혈로를 헤치던 항일의 나날들을 더듬어보라. 가렬한 조국해 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의 격동기를 펼쳐보고 사회주의건설위업의 변혁 기와 포성없는 전쟁의 준엄한 전구 들을 뒤돌아보라.

조국이 커다란 시련을 헤칠 때, 가 슴벅찬 승리의 포성을 울릴 때,세상 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할 때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곁에는 언제나 미더 운 총대전우들이 서있었다.

전우로부터 모든것이 시작된다. 전우가 있고야 총대가 있고 전우 가 있고야 붉은기도 있다.

최고사령관과 전우, 이는 우리의 모든 승리와 기적을 받들어올린 강력한 생명체였다.

정녕 이 땅에서처럼 최고사령관과 전우들의 단결이 혁명을 추동하는 무한대한 힘으로, 영원한 승리의 보 검으로 빛나는 이런 력사가 그 언제 있었는가.

열혈의 전우들이 백두산장군들의 위대한 심장에 운명의 피줄기를 잇 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준엄 한 사지판도 함께 헤치며 백승을 떨 쳐온 조선혁명은 오늘의 선군길에서 다시금 이에 대한 힘있는 대답을 주 고있다.

피바다,불바다를 헤쳐오며 수십성상 다져지고 축적된 백두산 동지애가 경애하는 원수님 헤쳐가시 는 선군장정의 천만리길에서 전면적

으로 폭발하고있다. 위대한 최고사령관이 강철의 전우 부대를 만든다.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였기 에 우리 군대는 백두산에 뿌리내린 동지애의 넋을 자기의 생명으로, 피 줄기로 간직하였다.

지금도 잊을수 없다.

진한 1 2월의 피눈물과 함께 온다.

정녕 보통의 피눈물이였는가. 위대한 장군님을 뜻밖에 잃고 천만의 군대와 인민이 땅을 치며 쏟고 쏟은 그 피눈물은 가장 위대한 장군,

회의참가자들은 풍치수려한 릉 한 시간과 가상세계속에서 현실

세계와 같은 흥미진진함을 느끼

게 하는 립체률동영화는 그들의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속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뗘선 미림승

마구락부와 문수물놀이장의 여러

평양참관의 나날 회의참가자

들은 평양교예극장과 4.25문

화회판에서 종합교예공연과 조

선인민군협주단의 화술소품공

곳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회의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가장 위대한 전우를 잃은 피눈물 이였다.

상상할수 없는 고통을 말없이 겪 으시며, 가야 할 앞길을 내다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우리모두 팔을 끼고 어깨겯고 이 준엄한 시련을 이겨냅시다!

弖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위대한 전우를 잃으신 크나큰 마음의 공백에 천만의 군민을 세워

주시는 하늘같은 믿음이였다. 전우의 그 믿음으로 새해의 첫날 근위땅크부대의 장병들과 함께 팔을 끼고 어깨겯고 새로운 주체 1 0 0년 대의 진군포성을 울리시였다.

전우들과 굳게 뭉친 그 모습으로 세계앞에 거연히 나서시였고 그 말없 는 심장의 웨침으로 천만리로 이어갈 동지애의 장정을 선언하시였다.

피눈물의 바다에서 어깨겯고 일어 난 전우들을 찾아가신 길이였다. 그 한차례, 한차례의 현지시찰은 사랑하는 전우들과 피와 정을 잇는

걸음걸음이였다. 사람들이여, 우리 다같이 생각해 보자.

최고사령관동지와 초소에서 맺은 인연을 말할 때 우리 병사들의 심장 은 과연 무엇으로 고동치고 그들은 눈물에 젖어 무엇을 목메여 말할 것인가.

많은 이야기들, 많은 날과 달들, 많은 사연과 순간들이 무쇠가슴들에 생생히 남아 눈물을 자아낼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E. L》의 성원들처럼 그이와 팔 을 끼고 어깨겯고 기념사진을 찍은 장병들을 천으로 헤아리랴, 만으로

헤아리랴. 초도와 판문점, 오성산과 감나무 중대, 장재도와 무도, 월내도, 하늘과 땅, 바다초소에 이르기까지 우리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선군의 지명들 이 기념사진들에 다 새겨져있다.

바람세찬 함선의 갑판에서 해병들 속에 둘러싸이시여 환하게 웃으시던 그날의 군항, 찬바람부는 활주로에서 비행사들의 훈련을 마지막까지 보아 주시던 못 잊을 화폭, 감시소의 나어 린 병사가 너무도 당돌하고 대견하 시여 그리도 정을 부어주시던 섬초 소의 이야기…

위대한 령장의 심장에서 뿜어지는 사랑의 불길과 더불어 한번에 수백 수천명의 군인들이 함께 찍은 기념 사진도 생겨나고 수십명의 병사들 한사람, 한사람을 곁에 세우시고 사진을 찍어주신 전설같은 이야기도 생겨났다.

그이는 정녕 조국앞에 병사로 나 서시였고 한몸을 내대고 전우들을 찾아가시였다.

가파로운 칼벼랑길을 달려 오성산 정점에 오르시였던 6월의 그날 조국의 마지막차단문을 열고 적진 350m앞의 까칠봉초소에 도착 하시였건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 마지막초소가 또 있다는것을 아시고

싣

봅시다! 설사 지뢰밭이 가로놓였다 해도 병사들을 찾아가시는 그이의 발걸음 을 누가 막을수 있었으라.

한명의 군인이 있어도 무조건 가

다시 걸음을 내짚으시였다.

동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날에 서시 였던 곳에서 적들과의 거리는 불과 1 0 0 m안팎,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섬찍하고 피가 졸아든다.

오성산의 병사들은 말한다. 100m 가 아니라 1 0m, 아니 적의 총구앞에 우리 병사들이 서있다 해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기어이 찾아 오셨을것이라고. 사랑이라면 심장을 통채로 주는 사

없이 맡기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분 에게 어찌 심장의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고 이런분을 어찌 전우로 따르 지 않을수 있으라.

랑, 믿음이라면 자신의 생명도 서슴

위대한 전우의 숨결이 페부로 뜨 겁게 흘러든다.

전투임무수행중 장렬하게 희생된 용사들의 묘소에 자신의 존함을 새기도록 하신 그 불같은 동지애가 우리 심금을 울리고 철령병사들이 물고기를 풍족하게 먹는 사진을 두고 두고 보시는 그 어버이의 정에 눈시 울이 젖어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또 하 나의 자신이 있다면 전우이며 자신 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전우이다. 천만의 군대와 인민은 그이를 운명의 태양으로 따르고 그이는 사 랑하는 전우들을 자신의 생명으로

간주하신다. 자신께서는 전우복을 타고났다고 늘 말씀하시는 우리 원수님,

허나 이 땅의 천만군민은 이렇게 심장으로 웨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판동지의 불같 은 정과 희생적인 헌신이 이 땅우에 전우의 대부대를 묶어세우고 바로 그로 하여 선군혁명은 백전백승을 떨치고있다고.

승리란 무엇이고 힘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찌하여 자신의 운명을 드림없이 확신하는것이며 조국의 존 엄과 미래에 대하여 언제나 마음을 놓게 되는가.

우리에게는 승리와 힘에 대한 자 기의 철학이 있다.

최고사령관과 전우, 바로 이것이 힘에 대한 가장 완벽

한 대답이고 승리에 대한 가장 믿음 직한 담보이다. 잠들줄 모르는 서해의 파도는 지

금도 감격의 이야기를 전한다. 미제와의 전면대결전으로 공기마 저 얼어붙은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 대열점지역의 섬방어대들을 또다시

찾아가신 경애하는 원수님, 것이다. 온 나라가 지켜보고 온 세계가

지켜본 3월의 광경이 지금도 눈앞

섬이 통채로 환희의 파도가 된듯 물결쳐 달려나오는 병사들과 그들을 뜨겁게 부둥켜안으시는 우리 원수님, 눈물범벅이 되여 어째서 이 런 위험한 곳에 또 오셨는가고 울먹 이며 말씀드리는 군인들에게 동무들 이 보고싶어 다시 왔다고 환하게 웃 으시며 말씀하시였다.

따뜻한 손길로 항명이의 돌생일을 축하해주시던 우리 원수님, 사랑하는 전사들모두를 품에 안고 찍으신 뜻 깊은 기념사진…

우리의 신성한 땅과 바다에 단 한 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지체없 이 섬멸적인 반타격을 가함으로써 조 국통일대전의 첫 포성, 신호탄을 쏘 아올리라고 하신 그 멸적의 선언과 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화폭이였다.

원쑤들은 무서운 불줄기를 토하는 우리 군대의 방사포도 두려워하고 무제한한 타격력을 가진 미싸일들도 무서워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힘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리도 간곡 하게 만류하셨지만 그이께서 타신 배가 파도를 헤가르며 뗘나기 시작 하자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바다기 슭으로 달려나오는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

3월의 차디찬 바다물속에 너나없 이 뛰여들어 《만세!》를 목청껏 부르 는 그들에게 어서 들어가라고 손저 어주시는 우리 원수님의 눈가에도 뜨거운것이 맺히던 그날의 화폭은 온 나라를 감동에 휩싸이게 하였다. 아마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렇

게 만류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군인 들은 이 세상 끝까지라도 그렇게 따 라갔을것이다.

광활한 바다는 땅과 땅을 갈라놓 고 사람들도 멀리 갈라놓았다. 그러나 조선의 바다는 최고사령판 과 전사들의 피줄기를 더욱 뜨겁게

이어주었다. 최고사령관과 전우,

이 불패의 단결이 바로 우리의 핵 이고 우리의 최강의 무기이다. 이것이 바로 핵탄보다 더 무서운 힘이며 깊이를 알수 없는 조선의 무 한대한 종심이다.

전우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전우가 아닌 맹목적인 군률이나 명 령으로만 뭉친 총대부대는 천만이 있 어도 몇명의 전우보다 강할수 없다. 첨단무기로 장비하고 핵무기를 휘 두른다 해도 전우의 부대가 아니면

한갖 겁쟁이무리에 지나지 않는다. 몇명의 전우가 있어도 천하를 얻 을진대 천만의 전우가 있다고 생각 해보라.

우리의 마을과 거리를 위성으로 들여다볼수는 있고 우리의 첨단무 기들의 타격력도 계산할수는 있을

그러나 과연 자기의 최고사령관을 그이를 따르는 길에 하나의 동지로

# 저

따라 얼음장같은 바다물에 뛰여드는 그 병사들의 심장의 무계와 불타는 정의 열도를 과연 리해나 할수 있겠는가.

에 질겁하지만 진짜공포를 느껴야 할것은 자기 최고사령관을 위해서 목숨을 내대는 전우부대의 총폭탄 위력이다.

적들은 우리의 미싸일과 포화력

원쑤들은 이제 이 힘과 맞서야 하 며 그때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되리 라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전우의 힘은 실로 무궁무진하다. 우리는 이 무한대의 힘으로 창공 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붓기고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라는 자기의 신념을 백배, 천배로 확신하 고있다.

거창한 사변들과 변혁들을 남기며 격동하며 흘러온 뜻깊은 이해, 과연 조선의 2013년을 력사우에 그리 도 자랑스럽게 뗘올린 힘은 무엇이 였는가.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우들이였다. 우리의 일당백군인들이였다.

그 힘은 천리방선에 뻗치면 멸적의 뢰성을 터치고 창조의 전장에로 뻗치

면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였다.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천만의 전우들이 위풍당당하게 나아가는 그 장엄한 힘의 시위로 전승 60돐도 성대히 경축하고 그 드세찬 진군대 오가 온 나라의 전구마다에 노도쳐 나아가 비약의 폭풍을 안아왔다.

산을 다스려 세계일류급의 스키장 을 만들라면 정신이 번쩍 들게 천지 개벽의 동음을 울리고 세상에 보기 드문 희한한 물놀이장도 단숨에 일 떠세웠다. 옹근 하나의 화려한 새 거 리도 단 몇달사이에 일뗘세우는 장 하고 또 장한 우리 군대이다.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 우시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신 그날 인민군대의 건설력량을 합숙 건설에 파견해주시면서 동무들에게 진짜인민군대맛을 알게 해주겠다 고, 인민군대가 어떻게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가를 한번 보라고 그리도 뜨겁게 말씀하시였으라.

총대전우들이 더없이 미덥고 대견 하시여 문수물놀이장건설장을 찾으 신 그날에는 엄지손가락을 흔드시며 좌우간 인민군대가 최고요, 정말 우 리 군인들이 힘이 있소라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신 그이, 마식령스키장건 설장을 찾으신 그날에도 인민군대에 맡기기를 정말 잘했소, 인민군대가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을 진행했소 라고 못내 기뻐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잊을수 없다.

위대한 김정은장군님의 두리에 혈 연으로 뭉친 백두산강군을 당할자

최고사령관의 담력과 기질을 닮고 최고사령관의 사상과 뜻, 인품과 정을 닮은 전우들, 전대오에 백두산위인의 사랑과 정이 굽이치고

맺어진 이런 군대의 힘의 분출은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다.

몇명의 투사나 영웅들만이 아니라 모든 병사들이 전우가 되고 전민이 총폭탄이 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옹위해나서는 여기에 우리 전우애의

전우들만 있으면 두려운 적이 없고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신조이다.

전군에 울리고 온 나라에 울리는 이 시대의 호소는 매 사람들의 심장

식인들도 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 우라는 혁명군대의 전우판으로 더욱 굳게 뭉쳐야 한다.

가 되는것이 아니며 최고사령관동지 만세를 높이 부른다고 진실한 전우

기들이 하나로 이어진 혈연의 동지, 최고사령판동지와 숨결을 맞추고 발걸음도 함께 하는 사상과 신념의 동지,의리와 보답의 동지,실천과 실적의 동지가 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은장군, 그이는 백두의 담력과 기상으로 천하대적을 단호히 짓부시고 백두산 대국을 휘황한 미래에로 이끌어가실 희세의 천출명장, 천하제일위인

이해의 마지막달, 마지막나날까지 병사들을 위하여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 한 모습을 온 나라가 우러르며 눈시

우리는 이 힘찬 부름으로 선군 혁명의 최후승리의 그날을 본다.

보게 될것이다.

것이다.

그 성스러운 불변궤도를 따라 곧바 조선은 전우의 기상으로 백승 만세소리 하늘땅을 진감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세세년년 빛내여나갈

라도에 인민의 문화휴식터가 훌륭

히 일떠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릉라급등어관과 전자오락판, 립체

릉라곱등어관에서 그들은 희

한하게 꾸려진 공연수조와 보조

수조, 과학기술지식보급실. 편

의봉사시설들을 참관하고 흥겨

운 음악에 맞추어 갖가지 재주

를 부리는 곱등어들을 보며 웃

률동영화관을 돌아보았다.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축복 속에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열성 자회의 참가자들이 평양에서 다 채로운 문화정서생활을 향유하 며 뜻깊은 나날을 보내고있다.

그들은 어머니당의 인민사랑의

결정체로 솟아난 릉라인민유원지

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였다.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 고 물고기잡이성과로 인민군대 의 전투력강화에 이바지해온 그 들에게 릉라인민유원지의 일군 들과 종업원들이 꽃목걸이를 걸 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며 열렬

히 환영하였다.





연도 관람하였다.

### 2013년 다누비아컵 및 슬로벤스꼬공개짧은주로속도 선수들 빙상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최 은 성 선 수

벤스꼬공개짧은주로속도빙상경 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 들이 27일 귀국하였다.

20일부터 22일까지 슬로벤스 꼬에서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에 는 우리 나라와 로씨야, 로므니 아, 마쟈르, 뽈스까를 비롯한 13 개 나라의 남녀선수들 100여명 이 참가하였다. 성인급과 청년급 으로 나뉘여 진행된 경기대회에 서는 세부종목들의 성적을 종합

하여 최종순위를 결정하였다.

남 자 성 인 급 500m,

2013년 다누비아컵 및 슬로 1 000m, 1 500m경기에 출전 한 최은성선수는 종합 1등으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녀자성인급과 녀자청년급에서

> 주윤미, 최승선수들은 각각 종합 2위를 하여 은메달들을, 김철광 선수는 남자성인급에서 종합 3 위를 하여 동메달을 받았다. 평양역에서 관계부문 일군들, 가

족들이 선수들을 맞이하였다. 체육인들이 선수들과 감독들 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 성과를 축하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선군시대 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항구구역 대두소학교 자매도분교 공훈교원 전복순동무

기세좋게 달리고있었다. 배머리에 서서 바다바람에 머 리카락을 날리며 멀리 수평선에 눈길을 주고있는 한 처녀의 모

2시간 남짓이 배길로 달려서 야 수평선 저 멀리로 2개의 거 뭇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매도이다. 륙지와 멀리 떨

(저 섬에서는 과연 어떤 생활 이 나를 기다리고있을가?) 그 처녀가 남포시 남산인민학 교(당시)에서 교원생활을 하다 가 소원대로 자매도분교의 교원

전복순동무였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 1978년 8월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소년단원들의 뒤에 는 학생소년들의 가장 가까운 스승이며 정치적보호자인 소 년단지도원선생님들과 분단지

습니다. 》 비록 몇세대가 살고있는 한적 한 섬일지라도 전복순동무에게 있어서는 보람차고 행복한 섬생

도원인 답입선생님들이 서있

학년이 서로 다른 몇명의 학 생들에 대한 수업을 마치고는 그들과 한데 어울려 탁구도 치 고 바다물에 뛰여들어 수영도 하였다. 명랑한 처녀교원의 가 슴속에 어떤 꿈과 포부가 자리 잡고있는지 그때까지는 누구도

소중한 꿈이 있었다. -우리 당의 한없이 숭고한 후 대사랑을 외진 섬마을에도 전해 주는 한줄기 빛이 되리라.

그것은 단 한명의 학생을 위

산골마을의 학생들을 위해서 통 학뻐스, 통학렬차가 달리고 직 승기까지 날으는 이 좋은 제도 를 위해 한생을 빛나게 살려는

이름없는 한 처녀의 심장의 맹 세였다. 그 맹세를 지키는 길은 결코

헐치 않았다. 섬에는 선천적인 기능부전으

하지만 전복순동무는 물러설수 없었다. 그는 그 애의 부모들을 찾아가 분교의 학생으로 받아들 일 자기의 결심을 터놓았다.

으랴. 그 학생이 제손으로 또박또박 《우리 나라》라고 쓰고 류창하 게 읽었을 때 전복순동무의 눈

가에서는 맑고 뜨거운것이 하염

그렇게 날과 달이 흘렀다.비 가 오고 눈이 오고 풍랑세차도 변함없이 울리는 섬마을의 수 업종소리와 더불어 학생들은 몸도 마음도 몰라보게 자라났 다. 등대초소주변에 나무도 심 고 등대의 유리도 닦으면서, 사 랑의 직승기를 타고 뭍으로 오 고가면서 아이들은 조국의 고 마움을 새겨안고 희망의 나래

를 더욱 활짝 펼쳤다. 한해, 두해 해가 바뀔수록 섬 사람들에게는 걱정거리가 생겼 다. 처녀교원이 학생들에게 정

누구보다도 전복순동무의 부 모형제의 독촉이 불같았다.이 제는 섬생활을 그만두고 본교로 돌아와 가정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들의 편지가

을 기쁘게 해줄 회답편지를 보 나서말입니다.》 낼수가 없었다.

그렇게 또 한해가 흘러갔다.

을 내릴 결심이니 일생을 같이

심장을 움직이였다. 속에 그 청년과 한가정을 이루

었다.

생활은 줄기차게 앞으로 전진 하였다. 전복순동무도 어느덧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였다. 그 는 교육자로서, 어머니로서 누 구보다 바삐 시간을 보냈다.

동무는 정말이지 눈코뜰새가 없 었다. 그러는 녀교원을 섬사람들이

손목을 잡고 배에서 내리였다. 누구나 의아한 표정으로 전복 순동무와 처녀애를 번갈아 바라 보기만 하였다. 전복순동무가 부모잃은 처녀애를 데려다 키우 기로 결심하였다는것을 알게 된

그 애를 내게 맡기는게 어떻습 니까?…》

였다.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것은 말 처럼 쉽지 않았다. 새로 데리고 온 처녀애는 처음에는 좀처럼 속을 주지 않았었다. 그때마다 전복순동무는 너무 속이 타 밤 이면 남모르게 베개잇을 적시군 하였다. 자기의 정이 모자란다

마침내 그 딸이 《어머니!》 라고 부르며 전복순동무의 품에 안겨들었다.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따뜻이 바래주었다. 배에 오르기에 앞서 신부가

도 소리없이 눈굽을 찍었다. 은 이렇게 거침없이 지나갔다. 한 녀성의 청춘시절과 한생이 외진 섬 분교의 교단에서 흘러갔다.

들의 《공세》는 또다시 시작되 였다. 그동안 섬에서 해놓은 일 도 많으니 이제는 물에 나와 함 께 살자는것이였다. 편지들이 연방 날아들었다.

전복순동무는 그들에게 보내 는 편지에 이렇게 썼었다.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공훈교원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 음과 사랑에 보답하지 못했어 요. 저는 섬을 떠날수 없어요. 하샜을 섬의 아이들을 위해 바

심을 굽히지 않았고 등대장이 된 남편의 방조속에 교육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특출한 높이와 위력이 있다.

천만이 참된 전우가 되자!

의 문을 쾅쾅 두드리고있다. 로동계급과 농민들도, 붓을 든 지

붉은 령장을 함께 달았다고 전우 가 되는것이 아니다.

심장과 심장이 하나로 되고 피줄

이시다.

우리는 뜨겁게 목격하고있다. 울적시고있다.

고지의 전사들에게 어머니품과 같 은 따뜻한 보금자리를 안겨주시려, 물고기대풍이 든 철렁풍경이 천리방 선의 풍경이 되게 하시려 건군력사 에 일찌기 없었던 조선인민군 수산 부문열성자회의를 열어주시고 회의에 몸소 참가하신 우리 원수님, 당중앙 위원회청사앞에서 사랑의 기념사진 까지 찍어주신 그 높으신 뜻, 하해같 은 믿음을 무엇으로 다 헤아리랴.

최고사령관과 전우,

이제 세계는 보게 될것이다. 최고사령관과 전우들의 위대한 힘 으로 폭풍처럼 내달리는 조선, 온 세 상이 보란듯이 거연히 솟구쳐오른 강성조선의 밝은 모습을 멀지 않아

선군혁명의 기관차여. 로 힘차게 앞으로, 앞으로만 내달리라. 떨치며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

## 도 전우들과 더불어 내다보시였다. 조선인민군 수산부분열성자회의 참가자들 문 화 정 서

배는 서해의 물결을 헤가르며

습이 유표하게 눈에 띄운다.

어져있는 섬.

으로 배치된 20살이 갓 지난

활이였다.

알지 못하였다. 전복순동무에게는 남모르는 해서도 분교를 세워주고 교원을 한달이 멀다하게 섬으로 날아왔 고생이겠습니까. 전 기쁩니다. 보내주는 교마운 우리 당. 외진 다. 그러나 전복순동무는 그들

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어린이가 있었다. 그의 부모들도 손맥을 놓고 나앉은 상태였다.

그 나날에 무슨 일인들 없었

없이 흘러내렸다.

이 푹 들어 혼기를 놓치는줄도 모르고있는것이였다.

외진 섬분교에서 후대교육에 순결한 량심을 바쳐가고있는 전복순동무에 대한 기사가 신 문에 실렸다. 많은 독자들속에 서 축하의 편지들이 날아왔다. 어느날 편지대신 름름한 한 청년이 섬에 찾아왔다. 섬에 닻

하자는 그 진정이 처녀교원의 전복순동무는 만사람의 축복

교편물도 만들래, 수업준비도 할래, 두 아이를 키울래 전복순

더욱 극진히 위해주었다. 등대 를 지키는 남편도 안해의 일에 극성이였다. 그러던 어느날 물에 나갔던 전복순동무가 한 어린 처녀애의

섬의 늙은이는 말없이 눈굽을 훔치였다. 《선생님은 할 일도 많을텐데

전복순동무는 웃으며 대답하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어찌

우리 분교에 또 한학생이 늘어

대원으로 생활하고있다. 친 35년, 륙지와 멀리 떨어진 고 자책하며 더 따뜻이 위해주 고 누구보다 왼심을 썼다.

전복순동무가 이렇게 어엿하 게 키운 그 딸이 뭍으로 시집가 는 날 섬사람들모두가 떨쳐나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품을 파고들 때 둘러선 사람들 1 0년, 2 0년, 3 0년, 섬생활

그가 쉰고개를 넘어서자 형제

《저는 아직 조선로동당원의

치겠어요.》 전복순동무는 끝내 자기의 결

처녀시절부터 머리에 흰서리 가 내린 오늘까지 그가 소학교 를 졸업시킨 제자들은 20여명 이다. 그들가운데 3명은 부모 들의 뒤를 이어 현재 섬에서 등

외진 섬에서 흘러간 성실한 한 교육자의 삶을 값높이 빛내준 것은 어머니당의 따사로운 품 이다. 은혜로운 태양은 외진 섬 도 그늘 한점없이 따뜻이 비쳐 주었다. 엄마전 전복순동무는

20여명의 학생들을 위해 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 속에 선군시대 공로자의 영예를 지니였다.

지난해 섬분교에 경사가 났다. 분교의 맹성혁학생이 평양에 서 진행되는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 합단체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공연관람을 하는 모습이 TV화면을 통해 섬마을에 전해

온 섬이 격정으로 끓어번지던 그날 전복순동무는 새로운 교편 물을 준비하느라 분교에서 꼬박 밤을 새웠다. (우리 아이들을 제일로 사랑

졌다.

하시던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꼭 같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가는 한줄기 빛이 되리라.)

이런 결심으로 그의 가슴은 더욱 뜨겁게 불탔다.

섬분교로 달려왔던 20대 그 시절의 열정과 기백으로 나이 쉰살을 훨씬 넘긴 오늘에도 전 복순동무는 섬마을의 아이들을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가고있다.

특파기자 주 창 선

리

곡

미

하였다. 8명을 통하여 80명,

하는데 큰 작용을 한것이다.

800명, 아니 온 농장을 교양

사상교양사업이 여러가지 형

식과 방법으로 심화될수록 실효

는 컸다. 날이 갈수록 미곡리사

람들의 사상정신적면모가 새로

와졌다. 《농장포전은 나의 포

전이다!》라는 애국의 구호가

실천의 구호, 행동의 구호로 되

여 온 농장에 애국의 열풍이 세

차게 몰아쳤다. 미곡벌에는 땅

의 진정한 주인의 대부대, 애국

당일군들이 대중을 농장의 참

된 주인, 열렬한 김정일애국주의

자로 키우는 원예사가 될 때 농

민의 꿈을 실현할수 있는 사상

정신적토대가 마련된다. 이것을

리당위원회는 실천으로 증명하

의 무성한 숲이 자라났다.

시대의 앞장에 선 사람들일수 록 그들의 꿈은 더욱더 아름답 고 숭고하다.

사리원시 3중3대혁명붉은기 미곡협동농장 사람들의 가슴마 다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본보기농장, 나의 정든 농장이 라고 불러주신 영광의 땅에서 사는 남다른 긍지에서 피여난 소중한 꿈이 있다.

선군시대 애국농민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며 과학농사의 덕을 마음껏 맛보며 도시부럽지 않은

金

## 애 국 의

예로부터 농사를 천하지대본 이라고 하면서도 천시된것이 바 로 농사일이였고 농민이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농민들에 게는 애국으로 빛나는 존엄높은 삶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길이 펼쳐져있다. 찾으시는 굣마다 일 잘하는 농장원들을 농촌혁명 가, 애국농민으로 불러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며 시 대의 앞장에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

미곡리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위 대 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 업적이 많이 깃들어있는 뜻깊은 농장이며 나의 정든 농장입니다. »

지적하시였다.

-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 한 뜻 받들어 모든 농장원들을 영광의 땅을 빛내여나가는 농촌 혁명가, 애국농민으로 더욱 억

세게 키우자. 이것이 미곡리사람들의 가슴마 다 끓고있는 열망에 맞게 그들을 땅의 참된 주인, 선군시대 애국농 민으로 키우기 위하여 리당위원

회가 틀어쥔 첫번째 고리였다. 이에 따라 리당위원회는 사상 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통 한 교양, 사적관참관을 통한 교

양, 예술소품공연과 포전방송기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펼치려

농

는 꿈, 이 애국의 꿈, 비약의 꿈, 생 활의 꿈은 바란다고 하여 저절 로 실현되는것이 아니다. 꿈의 주인은 대중이며 그 실현도 대 중이 한다. 여기서 결정적작용을 하는것이 당조직의 역할이다.

### 원 예 사

재, 직관선전물을 통한 교양, 집 체교양, 개별교양…

영광의 땅에서 사는 긍지와 영예가 높다고 하여 모두의 준 비정도가 같은것은 아니였다. 어느해인가 모내기전투때였

다. 농장원들과 함께 모보식을 하던 관리위원장 송윤희동무의 눈에 뿌리가 드러난 모춤 한개 가 띄였다. 벼모가 모자라는것 도 아닌데 한개쯤이야 하고 대 수롭지 않게 말하는 농장원청년 의 태도가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날 저녁 리당비서와 마주앉

은 관리위원장은 안타까운 심정 을 터놓았다. 《우리 농장원들처럼 성실하

고 주인다운 사람들은 없다고 자부해 왔는데…》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 리당 위원회가 찾은 교훈은 참으로

컸다. 농장원들속에 더 깊이 들어가 그들의 마음속에 애국의 넋을

심어주자. 다음날부터 농장의 모든 일군 들이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을 이끌어나갔다. 땅에 씨 앗을 묻기 전에 애국의 마음을 먼저 묻을줄 아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농 촌혁명가라는것을 실천적모범 으로 보여주었다. 모춤 하나도 귀중히 여기는것이, 하나의 빈 포기를 놓고도,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낟알을 보고도 제 살점이

떨어진것처럼 가슴아파하는것 이 바로 김정일애국주의라는 판 점을 실천속에서 사람들의 가슴

리

사

<u>O</u>

원

시

마다에 깊이 새겨주었다. 리당위원회는 또한 애국의 싹 을 찾아내고 키워주고 일반화하 는 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그중의 하나가 화선식긍정소 개선전판을 통한 교양이다. 혁 신자들의 사진과 긍정자료를 붙 인 접이식선전판을 가지고 전투 장들을 돌며 농장원들속에서 발 휘되는 애국의 싹들을 제때에 소개선전하였다. 토요일을 리용 하여 학생들앞에서 선전하기도 하였는데 실효는 매우 높았다. 자식들앞에, 동생들앞에 자랑스 럽고 뗫뗫한 모습을 보이기 위 하여 누구나 분발해나섰다. 한

### 과 학농 사열 풍 과 송 풍 기

현대농사는 과학농사이며 모 다.대중을 과학농사의 주인으 든 영농광정이 기술광정이다. 뚝심만 가지고 농사짓던 시기는 영영 지나갔다.

번에 8명의 혁신자를 소개할수

있는 이 선전판의 위력은 대단

과학농사야말로 농업생산의 비약적발전과 흥겨운 로동조건 을 담보하는 결정적고리이다. 리당위원회는 우선 농장원대 중이 과학농사의 주인이라는 관

점을 바로가지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계기가 있었다. 몇해전 한해 농사경험과 교훈을 분석한 자료 를 보던 리당비서는 스쳐지날수 없는 문제점을 포착하였다. 어 느 한 작업반에 새로 받아들인 품종의 정보당 수확고가 예상밖 이였다. 원인을 분석해보았다. 새 품종이 그 필지의 토질에는 적합치 않았던것이였다. 농장기 술일군이 작업반초급일군 몇명

을 만나보고 품종배치를 확정한

결과였다. 문제는 여기에 있었

로 보지 못한 일부 일군들의 관 점때문에 거둘수 있는 성과도 거두지 못한것이다. 과학농사의 주인은 바로 대중

이다. 이런 관점으로부터 농장 에서는 한해농사작전을 세우기 에 앞서 해당 필지별로 초급일 군들, 그 땅을 다루는 농장원들 과 품종적특성 및 토질의 호상 관계를 진지하게 토의하고 적합 한 품종을 확정하고 배치하도록 하는 원칙을 세웠다.

이러한 사업체계는 대중을 과 학농사의 주인으로 만드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다음으로 큰 힘을 넣은것은 대중을 선진과학기술로 무장시 키는 사업이다. 리당위원회는 기술일군 5일

학습체계를 정연하게 세웠다. 5일에 한번씩 농장관리일군들 과 작업반장, 작업반기술원, 분

조장들을 다 참가시켜 강습을 주는 체계이다. 강습뒤끝에 일 기조건과 생육상태, 경영조건 등을 고려하여 5일간의 농작물 재배기술대책을 집체적으로 토 의결정하는것을 제도화하였다. 주목되는것은 리당비서, 부비서 를 비롯한 당일군들부터가 강습

에 모범적으로 참가하여 선진기

위

워

과

당

술로 무장한것이다. 이렇게 재무장한 기술일군들 이 농장원들에 대한 과학기술 학습을 실속있게 집행하도록 하였다.

리당위원회는 과학농사의 열 풍을 일으키는데서 청년작업반 을 본보기로 내세웠다.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 이 기술학습과 선진기술도입에 서 농장의 거울이 되게 하기 위 해서였다.

리당위원회는 청년작업반에 서 경험을 창조하고 온 농장에 일반화하는 사업을 잘 짜고들 었다.

리당위원회는 또한 과학기술 거점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과 학농사작전을 책략적으로 하도 록 당적으로 잘 떠밀어주었다.

두해전 관리위원장이 정보산 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종합분석 실과 농업과학기술지식전자열 람실을 건설할것을 발기해나섰 을 때 리당위원회는 이것을 적 극 지지해주고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이끌어주었다.

준비실, 토양분석실, 작물분 석실 등을 갖춘 150㎡의 종 합분석실이 훌륭히 건설되였 다. 련이어 농업과학기술지식전 자열람실도 일떠섰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을 과학농사의 믿음직 한 주인들로 키울수 있는 거점 들이 마련되였고 날이 갈수록 그 생활력이 과시되였다.

과학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회 서 공기처럼 차흐르게 되였다. 이런 분위기에 맞게 리당위원

당

회는 모든 영농공정들에서 과학 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것은 물론이고 누구나 새 기술의 창안자가 되도록 대중적 기술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렸다.

관리위원장이 배기가스를 처 리하여 농작물의 린영양을 강화 할 착상을 하였을 때였다. 리당 위원회는 기능이 높은 농기계수 리공에게 그 기술과제를 대담하 게 맡겨주고 짧은 기간에 완성 하도록 하였다. 하여 올해에 모 내는기계들을 100% 개조함 으로써 쓸모없이 대기를 오염시 키던 배기가스를 농작물의 린영

### 분명의 창조자와

도시인구집중과 농촌인구감 소, 이것은 세계적인 난문제이다.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농사 일이 어렵고 힘든데도 있지만 보다는 농촌의 문화생활조건이 도시보다 훨씬 락후하데 있다. 그러면 문명은 그 누가 가져 다주는가. 아니다. 주인들의 손 끝에 있다.

미곡리당위원회는 이 문제를 매우 중시하였다.

우선 농장의 교육수준을 높이 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문 명도를 재는 중요한 척도의 하 나가 교육수준이기때문이다.

2 1 년전 장경집동무가 미곡 리당비서로 배치되여왔을 때 농 장의 기사, 준기사비중은 그닥 높지 못했다. 백두산절세위인들 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우 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였다. 일하면서 배 우는 교육체계는 마련되여있 다. 문제는 일군들의 눈이 높지 못한데 있다.

이 문제는 리당위원회적인 사

양강화에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실 례에 불과하다.

모든 농장원들이 선진과학기 술로 무장하고 적극 활용하게 됨으로써 농업생산의 과학화가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정보당 수확고를 비약적으로 높여 해마 다 논벼농사에서 장훈을 부르게 되였다. 2년전 관리위원장은 물론이고 리당비서, 작업반초급 일군들을 포함한 1 0명이 학위 를 수여받았다.

과학농사열풍, 전민과학기술 인재화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 는 송풍기가 된 리당위원회의 사업기풍이 안아온 비약의 열매 였다.

업으로 전환되였다. 은파농업전 문학교 현지학습반이 농장에 여 러개 조직되여 몇해 지나 기사. 준기사대렬이 전체 농장원수의 6 0%이상으로 늘어났다. 큰 성 과였다. 그러나 더 높은 요구를 제기했다. 몇해후에는 제대군인 농장원들은 물론 가정부인들까 지 계응상사리원농업대학(당 시)을 졸업하였다.

오늘 전체 농장원수의 74% 를 차지하는 기사, 준기사대렬 은 미곡리의 교육수준이 얼마나 높은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농장의 문화적면모는 또 얼마 나 훌륭한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돌아 보시고 높이 평가하신 수백세대 의 현대적인 농촌문화주택들, 그 이름도 유정한 살구동네와 추리동네를 비롯하여 과일동산 으로 전변된 마을들, 농민휴식 터, 도시극장 못지 않은 문화회 판, 사람들이 즐겨찾는 종합편 의시설…

하지만 일군들은 여기에 만족

할수 없었다. 사회주의문명국건 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21 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활 짝 열어놓을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보 니 눈이 또 높아졌다.

-로라스케트장을 건설하자! 리당비서의 이 발기는 사람들 을 놀라게 했다. 농장에 로라스 케트장까지 있어야 하는가고 의 견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 다. 하지만 농촌이 도시문명을 따라만 갈것이 아니라 압도해야 한다는것이 리당비서의 결심이 고 배짱이였다.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이 적극 지지해나 섰고 농장원들이 떨쳐나섰다. 이렇게 되여 얼마후 로라스케트 장이 훌륭히 건설되었을 때 사

람들은 입을 딱 벌렸다고 한다. 리당위원회일군들의 이런 창 조적인 사업기풍, 완강한 일본 새는 군중예술 및 체육활동에서 도 커다란 성과를 안아왔다. 제 1차 태양절기념 전국예술축전 에서 축전단체상 쟁취, 농민동 맹결성 80돐기념 전국농업근 로자롱구경기대회에서 우승… 무대에 나서면 예술인,경기 장에 나서면 체육인이 되는것이

오늘의 미곡리농민들이다. 이렇듯 당조직이 밑거름이 될 때 농장원들모두가 문명의 창조 자, 향유자가 될수 있다.

리당위원회의 사업을 한마디 로 평하면 사상적으로, 기술적으 로, 문화적으로 준비된 농촌의 참된 주인들을 키우는 원예사, 송풍기, 밑거름이 된것이다.

오늘 우리 농촌의 꿈은 날로 커지고있다. 그 꿈의 실현여부 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리상을 충직하게 받들어가 는 당조직들의 역할에 결정적으 로 달려있다.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 명,이것이야말로 농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위력한 무 기가 아니겠는가.

교정을 돌아보는 우리의 눈앞

에는 내 조국의 창창한 래일이

본사기자 김 향 란

량 강 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

였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고 의료일군들이 정성을 돌우에도 꽃이 핀다고 다하면 이 세상에 고 치지 못할 병이 없습

얼마전이였다.

《선생님!》 하고 웨치 한 학생이 량강도인민 병원 과장 김선희동무의 품에 와락 안겨드는것이 母 였다. 학교적인 달리기경 기에서 1등을 하였다는 학생의 이야기가 의사,

간호원들을 더욱 기쁘게 하였다. 한해전까지만 해도 선 천성질병으로 제대로 건 지 못하던 혜산시 장덕고 김경림학생이 달리기경기 에서 1등을 하였다니 어

찌 그렇지 않겠는가. … 지난해 9월 어느날이였다. 어머니의 등에 업혀 병원에 들어선 경림이의 발을 보는 순

인 민 병 원 없었다. 귀엽게 생긴 소년이 선 천성질병으로 8살이 되도록 제

대로 걷지 못한다는것이였다. 과장 김선희동무는 병력서를 펼쳐놓은채 깊은 생각에 잠기 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3 0년간 의료일군으로 일해 오지만 이런 환자는 처음이였 다. 한순간 김선희동무의 귀전 에 종일 창문가에 앉아 다른 집 아이들이 뛰노는것을 부럽게 바 라보기만 한다는 경림이의 어머

니가 하던 말이 다시금 들려오 는듯싶었다. (복받은 이 땅에 태여난 저 어 린것이 한점 그늘도 없이 희망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게 해주자.)

다음날부터 그는 정형미세수 술과 관련한 수많은 도서들을 품을 들여 탐독하였다. 류사한 자료들은 있었으나 경림이와 같 은 화자를 치료한 실례는 없었 급중학교 소학반 1학년 다. 외과부문에서 오래동안 일 해오는 의사들도 만나보았지만 신통한 대답이 없었다.

처음 해보는 정형미세수술법 을 익히기 위해 그는 남들이 퇴 근한 후에도 밤늦도록 경림이의 발을 찍은 사진을 놓고 실기연 간 의료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습을 거듭하군 하였다.

료 일 군 들 힘에 부칠 때마다 그는 마음

> 속으로 이렇게 곱씹었다. 이 사실을 아신다면…)

그러면 저도모르게 힘이 솟구

벗어나 온 병원의 관심사로 된 속에 드디여 첫 수술이 시작되였 다. 성공이였다. 그렇게 5차례의 수술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며칠후부터는 경림이에게 걷

날이였다. 경림이가 찬 공이 하늘높이

료일군들과 간호원들의 눈에서 뜨거운것이 흘러내렸다. 회주의보건제도의 참다운 우월

은 화폭이였다. … 그때 일을 돌이켜보며 김선희 동무는 경림이를 품에 꼭 껴안 았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였다.

이 고마운 제도를 받드는 훌륭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제일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경림이의 수술은 과의 범위를

기운동을 시켰다. 그러던 어느

떠오르는것 아닌가.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며 의 참으로 그것은 우리 나라 사 성을 그대로 펼쳐보이는 감동깊

《희망의 나래를 마음껏 펴고

한 사람이 되거라.》 특파기자 전철주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육사업을 개선하자면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 이고 교육과학을 발전시키며 교육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 0: 합니다. »

얼마전 우리는 교육환경을 잘 꾸려놓고 교육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 배천군 2중영예의 붉은기 배천소학교를 찾았다. 교장 최병덕동무의 안내를 받 으며 우리는 원격교육실에 들어

송상카메라가 설치된 방에서 교장은 우리에게 《이 교원의 강의를 지금 다른 교실의 학생 들이 TV화면을 통해 시청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강의 에 출연하는 교원들은 모두 자 질이 높고 모범교수자들이라고

교장은 교실마다에 TV와 록 화기를 갖추어놓고 원격강의를 진행하니 학생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것이 알린다고 하 면서 우리를 자기 사무실로 안 내하였다. 방에도 콤퓨터와 송 상카메라, 마이크를 비롯한 설 비들이 갖추어져있었다.

이 설비들은 원격강의를 진

이야기하였다.

## 높은 실력을 배 천 군 행하기 위한것은 아니였다. 교

장과 분과장들을 비롯한 일군 들과 교원들이 매 교실에서 진 행되는 수업과정을 직접 자기 들의 눈으로 보면서 자질이 높 은 교원과 신임교원의 교수방 법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꾸려 놓은 설비들이였다. 이를테면 원격교수참판이라고 할수 있었 다. 이렇게 수업과정을 콤퓨터 에 입력시켰다가 교수합평회때 교원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 는 교원이 강의를 하고있었다. 니 아주 좋다는것이였다. 그만 새 교수방법을 탐구하고 실

> 들이 이룩되였다. 학교에서는 정보수단들을 효 과있게 리용하여 학생들에 대한 실력을 평가하고 질의문답의 방 법으로 외국어수업을 진행할수 있게 영어학습실도 훌륭하게 꾸

천하는 사업에서는 좋은 성과

려놓았다. 우리는 교장의 안내를 받으며 동화상편집물을 적극 활용한 천 체관찰실과 자연관찰실도 돌아 보았다.

천체의 운동과정을 콤퓨터화 면을 통해 볼수 있게 꾸려진 천 체관찰실도 그러하였지만 가상

## 소유한 앞날의 배 천 소 학 교 를

모형과 사판들로 가득찬 자연판 찰실은 학생들의 판찰력과 상상 력을 계발시켜줄수 있게 잘 꾸 려져있었다. 발전소에 가지 않고도 물로

찾 아 서 을 관찰할수 있게 한것이며 원 격조종으로 움직이는 기관차모 형, 번개와 우뢰가 생기는 원인 과 벼락이 칠 때 나무가 부러지 는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우리는 이들이 앞으로의 사업 에서 더욱 훌륭한 성과를 거두 리라는 믿음을 안고 교정을 나

펼쳐지는<del>듯</del>싶었다.

는 교편물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 소문없이 부강조국을 떠받들어가는 애국자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말로써 대답할것이 아니라 자 기 한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 입니다. »

3대혁명붉은기 12월5일 청년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부강조국 건설구상을 어떻게 받들어나가 야 하는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 된다. 기적을 낳은 애국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이 광산에 찾아오시여 12월 5일청년광산은 보물광산이라고 하시면서 더 많은 유용광물을 캐 낼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 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보물광산의 영예를 빛내여나가 자면 무엇보다도 심부개발을 진 행하여 새로운 유용광물을 꽝꽝 생산해내야 하였다.

당시 수직 수백m아래계선에 있는 갱에서 또 수백m를 더 내 려가는 수직갱을 건설해야 질 좋은 유용광물을 생산할수 있 었다.

수직갱을 건설하자면 많은 자 금과 설비, 로력이 필요하였다. 로력문제는 자체로 풀수 있었지 만 다른것은 국가적보장조건이 없으면 불가능하였다.

이런 때 기사장 최학철동무와 청년갱 갱장 박병현동무를 비롯 1 2 월 5 일 청 년 광 산

한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설비. 자재, 자금이 적게 드는 대담한 안을 내놓았다. 그것은 수직갱 이 아니라 사갱으로 심부개발을 진행하자는것이였다.

사갱건설을 위한 김혁청년돌 격대가 조직되였다. 누구나 거 기에 망라되겠다고 저저마다 찾 아왔다.

광산자체의 힘으로 사갱을 건 설하는 과정에 제일 걸린것이 자재와 설비였다. 광산의 일군 들과 로동계급은 본체만 남은 낡은 권양기를 공무직장에서 수 백개의 부속품을 깎아 살려냈고 휘틀용나무가 미처 보장되지 않 자 갈발을 엮어 휘틀대용으로 리용하면서 권양기실콩크리트

운반갱 갱장 최찬일동무와 4.15기술혁신돌격대 차원도 동무가 수백m에 달하는 레루를 교체할 때 받아들였던 레루용접 방법대로 사갱스키프의 레루용 접을 진행하여 수백개의 볼트와 나트를 절약하며 진군속도를 높

치기를 진행하였다.

여나갔다. 청년돌격대 대장 한관일동무 와 리철룡, 김계승, 김용만동무 를 비롯한 소대장들, 강성철, 정 창만, 장세일동무를 비롯한 청년 돌격대원들은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적어도 7~8년은 걸려 야 한다던 심부개발을 1년 5개 월동안에 끝내고 새로운 유용광 물을 생산할수 있는 채굴장들을 꾸려놓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누가 보건말건 오직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 여 조국의 재부를 늘여가려는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애국심과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광산에

서는 해마다 수만 t의 유용광물

들을 캐내여 경제건설과 인민생

활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되

스스로 말아안은 일감 이 광산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광물을 생산하여 여러 공장, 기 업소들에 보내주면 자기들의 사

명을 다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바라시고 조국 이 요구하는 일이라면 스스로 자기들이 해야 할 일감으로 걸 머지고 그 실현을 위해 헌신의 땀을 바쳐왔다.

1 0여년전 초급당비서 김철 용동무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광산에서 나오는 어느 한 광물을 보시면서 이 광물을 볼 때면 가 성소다생각이 난다고 하신 유훈 을 결사관철할 결심을 품었다. (우리의 힘으로 가성소다생산 공정을 꾸려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자.) 이런 그의 결심을 일군들모두 가 지지해나섰다.

광산에서 생산한 광물을 가지 고 가성소다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은 그 생산방법을 무려 네번이나 바꾸면서 근 10년동 안 진행되였다.

일 군 들 과 그만큼 어려운 전투였다.

하지만 광산의 일군들과 기술

자들은 한번 들어선 길에서 물 러서지 않았다. 《물론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우리 광산 에서 생산하는 광물에 대하여 우리만큼 아는 사람은 없다. 그 러니 우리가 이 광물을 가지고

가성소다를 생산하는 방법을 확 립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한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 이 어디 있겠는가.》 당일군은 이렇게 대중을 불러

일으켰다. 그들은 가성소다용액탕크와 염산탕크도 일반철판으로 만들 고 수지를 안붙임하여 불수강을 대신하면서 간고분투하여 마침 내 능력이 큰 가성소다생산공정 을 꾸려놓음으로써 광산에 찾아 오신 위대한 장군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게 되였다. 지금 광산에서는 운반갱 로 동자 류정호동무가 착상한 순 도높은 유용광물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에 분석실장 박철종, 기술과장 신성철동무들이 합세

하였다.

또다시 큰 리득을 주게 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조국의 재부를 늘여가는 일이라면 스스 로 자기들이 해야 할 일감으로 맡아나서 그 실현을 위해 헌신 의 한길을 걸어가는 이 광산일 군들과 로동계급의 자세와 일본

이 방법만 성공하면 국가에

로 동 계 급 새는 사람들에게 부강조국건설 에 어떻게 이바지하여야 하는가 를 실천으로 보여주고있다.

파수원,식물원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기 일터를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

는 과정에 싹트고 자라난다. 이 광산을 찾는 사람들은 누 구나 수림이 우거진 광산구내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그 울창한 수림이 광산조업당 시 네그루의 아카시아나무밖에

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초급당비서를 비롯한 일군들 은 버럭더미만이 쌓여있고 조금 만 바람이 불어도 흙먼지가 날 리던 광산구내를 무릉도원으로 꾸릴 결심을 안고 나무심기에

없던 곳에서 시작된것이라는것

그들은 바위를 정대로 까내고 흙을 날라다 구뎅이에 채우며 한그루한그루 나무를 심고 가꾸 지배인 김창하, 초급당일군인 강운철, 부원 리영성동무를 비롯

달라붙었다.

한 일군들은 출장을 갔다가도 수 종이 좋은 나무들을 구해왔다. 일군들의 뒤를 따라 종업원들 속에서도 견학이나 이동작업을 갔다가는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떠가지고와서 심는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되여갔다. 그 나날속에 복숭아, 살구, 추 리, 배, 사과를 비롯한 과일나무 들이 수천그루나 버럭산에 뿌리

를 내리고 백두산지구에서 뗘온 봇나무와 황철나무들이 광산구 내에 심어졌다. 따뜻한 지방에 서만 자란다는 감나무도 모진 눈바람을 이겨내며 풍토순화되 여 광산구내에 뿌리를 내렸다.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좋다고 하신 나무는 광산구내의 굣곳에 다 가져다 심었다. 종업 원들은 인민군대에 나가면서도 나무를 심고 신혼부부들은 결혼 을 기념해서도 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심은 나무종류는 무려

140여종을 헤아리고있다. 그리하여 수십정보나 되는 광 산구내에 20여만그루의 나무 들이 뿌리를 내려 봄철이면 온 갖 꽃이 피여나고 여름이면 록 음이 우거져 휴양소를 방불케 하고있다.

말그대로 광산구내는 무릉도 원으로, 식물원으로 전변되였다. 주체 9 9 (2 0 1 0)년 6월 또 다시 이 광산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록음이 우거진 광 산구내를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몇년전에 왔을 때보다 광산이 몰 라보게 달라졌다고 커다란 만족 을 표시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광산의 영예 를 계속 빛내이며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해 소문없이 큰일을 해가는 이곳 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과 같은 애국자들의 대 오가 거세찬 대하마냥 흐르기에 우리 조국은 그처럼 힘차게 전 진하며 더욱더 아름다와지고있 는것이다.

본사기자 리종석

혈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돕고 이끌며 하나의 화목한 대 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 나라 에서는 그 어디에 가나 사람들 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는 미풍

이 날로 활짝 꽃펴나고있다. 지병철동무를 비롯한 영유광 산의 일군들은 조국을 위해 피 흘린 영예군인의 생활을 진심으 로 도와주는것을 공민의 마땅한 의무로 여기고 여러해동안 평원 군 어파로동자구 116인민반

따뜻이 돌봐주고있다.

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 김승남

# <u> 독자의 좯기</u>

저는 서성구역에 사는 전쟁로

병입니다. 당일군들의 소행을 전하자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서성구 역당위원회 일군들에 대한 이야 기입니다. 그들은 우리 전쟁로 병들의 생활에 늘 관심을 돌리 고 애로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

어느날 병석에 누워있는 제가 갑갑한 시간을 보내고있다는것 을 알고 구역당책임일군이 텔레 비죤수상기를 가지고 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늦게 찾아와서 미 안하다며 먼저 머리숙여 인사를 하고 친혈육의 정 넘치게 이야 기를 하면서 저의 가정형편을 알

감동의 눈물을 억제할수가 없 었습니다.

책임일군은 곧 치료대책도 세

Ò 로 동무의 생활을 친혈육의 정으로

그들은 우리 당이 아끼고 내 세워주는 영예군인의 생활에 자 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명 절날, 휴식일은 물론 때없이 그 의 가정을 찾아 진정을 바쳐가 고있다.

그들의 지극한 지성에 떠받들 려 김승남동무는 오늘도 병사시 절의 그 나날처럼 혁명의 꽃을

변함없이 피워가고있다. 본사기자 리건일

이런 당일군들을 자랑하고싶습니다

워주었습니다.

어주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보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여 저는 평양시제 2인민병원에 입원하게 되였습 니다. 원장을 비롯한 의료일군 들의 정성이 얼마나 지극한지 모릅니다. 구역당일군들은 매일 이다싶이 저의 병상태를 알아보

고 치료대책을 세워줍니다. 그 뜨거운 정성, 고마운 사랑에 의 하여 저의 병은 날마다 호전되 여갔습니다. 앉은뱅이가 된다고 하던 제가 이제는 대지를 활보 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 전쟁로병들을 아끼고 내 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실천활동으로 구현

해나가는 이런 당일군들이 언제 나 저의 곁에 있습니다. 이런 당일군들을 자랑하고싶

습니다.

서성구역 장경2동 61인민반 전쟁로병 전월선

# 세차게 분출하는 우리 민족의 통일애국의지는 그 누구도 꺾을수

며 격동속에 흘러온 주체 1 0 2(2 0 13)년이 저물어가고있다.이 시각 우리 민족은 식을줄 모르는 애국의

열정과 굴함없는 신념,억센 투지로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헤치 며 조국통일의 길을 꿋꿋이 걸어온 한해를 긍지높이 되새겨보고있다.

### 겨레를 통일애국투쟁에로 른 장 엄 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조국통일 사상과 령도는 우리 겨레가 반통일 세력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승리 에 대한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운동 을 활력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한 원동력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통일은 더는 미불수 없는 민족최대의 절박한 과제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이고 유훈입니다. »

새해의 첫날 아침 해내외동포들에 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에 접하여 우 리 겨레 누구나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모신 커다란 민 족적긍지로 하여 감격과 흥분을 억제 하지 못하였다. 신년사의 구절구절마 다에 흘러넘치는 뜨거운 동포애와 철 석의 통일의지, 민족단합의 웅대한 뜻은 그대로 온 겨레에게 새 힘을 북 돋아주고 찬란한 통일조국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슴뿌듯이 안겨주었 다. 6. 1 5의 기치높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갈것을 열렬히 호소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그대로 올해 우리 민족이 들고나갈 투쟁의 지침, 승리의 표대였다.

신년사를 높뛰는 심장마다에 받아 안은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조국통 일의 그날을 기어이 앞당길 불타는 일념을 안고 산악같이 펼쳐나섰다. 신년사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싸우는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6. 1 5공동선언과 10. 4 선언을 고수리행하는 길만이 북남관계를 살 리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정당한 길이라는것을 자각 하고 조국통일투쟁에 한결같이 궐기 해나서도록 추동하였다. 해외동포들 이 살고있는 세계의 각지에서도

신년사에 대한 연구토론회들이 활발

히 벌어지는 속에 조국의 자주적평

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이

한층 강화되였다. 올해 우리 공화국은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조국통일의 새 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놓기 위해 참 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지켜 민족의 숙원을 풀어주는것을 최대의 사명으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공화국 은 시종일판 민족의 단합에 기초하 여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립장에서 평 화적으로 실현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 지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최대 한의 성의와 아량을 보이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6월 대변인특별담화문을 발표하고 7월 남측에 통지문을 보내여 개성공업지 구실무회담과 금강산관광재개문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 등 북남 관계에서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들을 대화로 풀어나갈것을 제의하였으며

그 실천적방도들을 내놓았다. 우여곡절끝에 개성공업지구정상화 를 위한 북남당국실무회담이 조국해 방 68돐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 되고 중단상태에 놓였던 개성공업지 구가 마침내 재가동의 동음을 울릴 수 있게 된것은 겨레의 고통을 한시 바삐 덜어주기 위한 우리의 통이 큰 결단에 의한것이였다. 북남관계의 새 로운 돌파구를 열기 위한 우리 공화 국의 적극적인 노력은 해내외 온 겨 레의 열렬한 지지와 호응을 불러일 으켰다.

남조선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 북남관계개선 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목소리가 전 례없이 높아졌다. 6. 1 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조국통일범민족 련합 남측본부, 진보련대를 비롯한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은 북남선 언들의 리행을 강하게 주장해나섰으 며 여기에 각 정당, 단체들도 합세해 나섰다. 남조선인민들은 보수패당의 류례없는 파쑈탄압속에서 조국통일 을 위한 현대투쟁을 힘있게 벌리 였다. 이러한 속에 6. 1 5 공동선언 발표 13돐과 10.4선언발표 6돐을 비롯한 주요계기마다 북과 남, 해외의 공동명의로 된 호소문과 결의문들이 발표되고 해외에서도 이 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광범 히 진행되였다. 해외동포들은 올해 를 6. 1 5 공동선언실천의 해로 정 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너도

나도 떨쳐나섰다. 올해 신년사에서 커다란 고무적힘 을 받고 6. 1 5 공동선언과 1 0. 4 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그 기치아래 뭉쳐나가는 온 겨레의 투쟁에 의하 여 반통일세력의 발악적인 책동은 걸음마다 분쇄되고 조국통일위업은

## 극도에 달한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

올해에 조선반도의 정세는 전례없 이 엄혹하였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미국의 악 랄한 간섭책동과 그에 적극 추종한 남조선괴뢰당국의 사대매국행위, 동 족대결책동의 후과였다.

지난해부터 우리 공화국의 평화 적위성발사를 걸고들며 반공화국제 재소동에 열을 올려온 미국은 올해 에 들어와 보다 강도적인 수법에 매 여달렸다. 미호전광들은 초대형핵항 공모함과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를

힘차게 전진하였다. 비롯한 핵전쟁수단들을 빈번히 남 조선에 들이밀고 실전을 방불케 하 는 광란적인 불장난소동들을 벌려 놓으면서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를 조성하였다. 한편 남 조선괴뢰들은 새해벽두부터 군사분 계선일대에 땅크와 장갑차들을 끌 어내여 실탄까지 쏘아대면서 반공 화국대결을 고취해나섰다. 이것은

올해에 북남관계개선의 길이 열리

기를 고대하는 온 겨레의 치솟는 격

분을 자아냈다.

《신뢰프로세스》라는것은 북남사 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면서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극악한 반통일각본이였다. 그들은 말로는 대화와 신뢰에 대해 떠들면 서도 《원칙론》을 내걸고 북남관계 개선에 한사코 제동을 걸었다. 괴뢰 패당은 우리의 아량있는 대화제의에 대해 그 무슨 《진정성》이니, 《남 남갈등조장》이니 하고 터무니없이 헐뜯었으며 내외의 비난에 몰려 마 지못해 회담장에 끌려나왔을 때는 의제와 상관없는 왕청같은 문제를 고집하며 대화분위기를 흐려놓았 다. 나중에는 개성공업지구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성실한 노력을 《신뢰 프로세스의 결과》로 외平하고 어렵 게 추진되던 북남대화를 동족대결에 악용함으로써 흩어진 가족, 친척상 봉과 금강산관광재개의 기회를 망쳐 놓았다. 더욱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 는것은 보수패당이 력사적인 북남수 뇌상봉을 감히 헐뜯으면서 모략소동 을 벌리고 《제 2차 남북관계발전기 본계획》으로 포장된 반6.15문 서를 꾸며내며 대결소동에 미쳐날뛴 것이다. 북남선언들의 리행을 거부 하는 남조선당국의 반통일적립장으 로 하여 우리가 제의하였던 6.15 와 7.4발표일공동기념문제,민간 래왕과 접촉, 협력사업문제 등 북남 관계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이

실현될수 없었다. 올해에 조선반도정세가 극도로 악 화된것도 남조선호전광들이 외세의 침략전략수행의 돌격대로 나서서 북 침전쟁도발을 위해 분별없이 날뛴것 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괴뢰보수 패당이 《정권》 간판을 내걸기 바쁘 게 벌려놓은것도 미제침략군의 항공 모함타격집단과 전략폭격기, 핵잠수 함을 비롯하여 핵타격수단들이 참가 한 대규모적인 《키 리졸브》, 《독 수리》합동군사연습이다. 호전광들 이 지난 8월 《년례적》이라는 구 실밑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 군사연습을 전례없이 요란하게 벌린 것은 대화분위기를 파탄시키고 핵전 쟁의 불집을 한사코 터치기 위한 무 모한 책동이였다. 미국과 괴뢰호전

팡들은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도 발》과 《핵 및 탄도미싸일위협》을 떠들어대며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이 니, 맞춤형억제전략이니 하는 극히 위험한 전쟁각본들을 작성하고 그것 을 실행하기 위한 대대적인 무력증 강과 북침전쟁연습에 발악적으로 매 달렸다. 뿐만아니라 괴뢰들이 미국 의 미싸일방위체계에 가담할 기도를 드러내고 미,일,남조선《3각군사 동맹》강화책동에 적극 뛰여들면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위기는 더 한층 고조되였다. 북침전쟁도발에 환장한 괴뢰패당은 입만 벌리면 그 누구에 대한 《원점타격》 폭언을 서 슴없이 줴치고 우리의 로선과 정책 을 악랄하게 비방중상하면서 나중에

자주, 민주, 통일은 남조선인민들 들은 올해에도 그 실현을 위한 투쟁 을 어느 한순간도 중단하지 않았다. 남조선에서 외세의 식민지지배체제 를 끝장내고 사회를 민주화하며 조국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는 속에 력사의 흐름을 가로막 으려는 반동보수세력의 망동은 각계 의 규탄배격을 면치 못하였다.

특히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전 쟁위험을 고조시키는 미국과 남조 화,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의 불길은 남조선뿐아니라 해외의 조선민족이 흉악무도한 음모까지 꾸미는 등 엄 중한 정치군사적도발을 끊임없이 일 삼았다. 이로 하여 북남관계는 개선 되기는 교사하고 날이 갈수록 더욱 파국에로 치달았다.

### 자주, 민주, 통일에

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념원이기에 그

선보수당국의 악랄한 대결책동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강력한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지난 4월 남조선의 여러 사회단체들이 《전쟁종식 평 화실현 국민행동》을 결성하고 《반전평화 미군철수 수요행동》 선 포식을 가진것을 비롯하여 동족을 해치기 위한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은 날과 달을 이어 끊임 없이 계속되였다. 남조선 각계층 인 민들은 《전쟁의 화근이며 조국통 일의 장애물인 미군은 이 땅에서 나 가라!》라는 구호를 힘차게 웨치 며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반 대, 북침합동군사연습중지, 미, 일, 남조선《3각군사동맹》해체,제주 해군기지건설반대 등 다양한 주제 의 투쟁을 적극 전개하였다. 반전평

현실은 괴뢰패당이 운운한 신뢰

니, 대화니 하는것은 한갖 기만이며 그들이 추구하는것은 오직 동족대 결과 북침전쟁밖에 없다는것을 여 실히 실증해주었다. 동족에 대한 적 대감이 골수에 꽉 들어찬 이런자들 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관계의 파 국을 해소할수 없고 온 겨레가 순 간도 편안할수 없다는것이 한해를

는 미국의 반통일적이며 호전적인 기도가 낱낱이 폭로되고 그에 빌붙 어 민족의 리익을 깡그리 팔아먹는 괴뢰보수패당은 갈수록 심각한 고립

마감하며 누구나가 되새겨보는 교 훈이다. 대한 강렬한 의지 살고있는 모든 곳에서 세차게 타번 졌다. 온 겨레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남조선을 아시아지배전략실현의 발 판으로, 핵전쟁전초기지로 삼고 대 조선적대시정책을 악랄하게 추진하

에 몰려 허우적거리였다. 올해는 남조선에서 독재통치를 반 대하고 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각 계의 대중적투쟁이 그 어느때보다 고조된 한해였다. 정보원선거개입사 건을 발단으로 개시된 각계각층의 반《정부》투쟁은 보수《정권》을

밑뿌리채 흔들어놓았다. 돌이켜보면 미국의 적극적인 지 지와 관권, 군권을 총동원한 부정협 잡선거로 집권한 남조선보수패당은 온 한해동안 《유신》독재부활과 반 인민적악정, 동쪽대결책동에 기승을 부리며 온갖 반역행위를 일삼았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 부정선거내막 을 가리우고 민심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반공화 국도발로 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 시키는 한편 진보민주세력말살을 노린 《종북》소동을 발광적으로 벌리였다. 모략에 이골이 난 파쑈광 들은 그 무슨 내란음모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하여 통합진보당과 그 성

호

원들의 활동을 우리와 억지로 련결 시키면서 이 당을 해산하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또한 조국통일범 민족련합 남측본부, 전국교직원로동 조합, 《자주민보》 등에 《북에 동 조》하였다는 터무니없는 죄명을 들씌우며 무차별적인 탄압을 가하 였다. 저들과 견해와 립장이 다른 모든 진보민주세력을 모조리 《종 북》으로 몰아 탄압말살하고 《정 권》위기를 수습하며 장기집권의 개꿈을 실현해보려는 괴뢰보수패당 의 책동은 실로 악랄하기 그지없었 다. 그러나 그들의 광란적인 《종 북》소동은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 는 격이 되고말았다.

분노한 남조선의 로동자들과 대학 교수들, 종교인들, 변호사들 그리고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매일같이 비상 시국회의와 초불집회, 기자회견, 민 주화를 위한 공동수업 등 다양한 형 태의 반《정부》투쟁을 전개하고 시 국선언과 성명들을 발표하면서 현 집권자의 《대통령》당선무효, 《정 권》퇴진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 다. 온 남조선땅이 보수당국의 반역 통치를 규탄단죄하는 성토장으로 화하였다. 최악의 위기에 몰린 괴뢰 패당이 폭압력량을 대대적으로 내 몰아 반 《정부》 투쟁에 대한 야수 적탄압에 열을 올렸지만 남조선 각 계의 투쟁기운은 오히려 더욱 강해 졌다. 남조선인민들은 올해의 굴함 없는 투쟁으로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자신들의 견결한 의지를 힘있 게 과시하였다.

6. 1 5의 기치높이 민족의 화해 와 단합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기어이 이룩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보람찬 투쟁의 한해는 저물어가고있 다. 새해에 필승의 신심을 안고 통일 애국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 조국 통일위업실현의 전환적국면을 활짝 열어제낄 우리 겨레의 의지는 천백 배로 억세여지고있다.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과 통일조 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에 넘쳐 하나로 굳게 뭉쳐 나아가는 해내외 온 겨레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을 힘 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박 철

### 위험천만한 세계대전각본

미국이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는 군 사적움직임을 보이고있다. 미싸일방위체계구축 에 광분하면서 추진하고있는 전지구신속타격계 획이다.

잠수함, 군함, 전투폭격기 등에서 정밀화된 상 용무기를 발사하여 1시간내에 지구상 그 어느 지역이라도 타격을 가한다는것이 그 골자이다. 현 재 비행단계에서 프로그람변경과 동시목표소멸이 가능한 타격밀도가 매우 높은 새로운 순항미싸일 에 의거하여 이 계획을 추진하고있다고 한다. 이 로써 군사적힘에 의한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 는 미국의 음흉한 기도가 또다시 드러났다.

수십년간 미국이 집요하게 추진하고있는 전지 구미싸일방위체계구축은 말이 《방위》이지 실 지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린것이다. 전지구신속타격계획은 어느 한 개별 적나라만을 노린것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야심 적이다. 미국은 전지구신속타격계획을 상용무기 에 의한 공격으로 광고하지만 발사된 순항미싸 일에 무엇이 탑재되여있는지는 공격자들만이 알 일이다. 거기에 핵단두가 설치되지 않는다는 담

보는 어디에도 없다. 집권초기 《비핵세계》구상을 요란하게 광고 한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 는 나라들에 《핵범인》의 감투를 씌워놓고 《핵 시설》을 파괴해야 한다는 명분밑에 첨단무기개 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미국의 전지구신속타격계 획은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것으로서 명백

히 무모한 선제공격을 노린것이다. 미국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허덕이면서도 최신 전쟁장비개발 및 현대화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있는 목적은 뻔하다. 파국적인 경제위기의 출로를 새로운 침략전쟁에서 찾으려는것이 미국 의 기도이다. 《비핵세계》의 간판밑에서 감행되 는 미국의 무력증강책동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열 핵전쟁위험성은 날을 따라 더욱 커지고있다.

전지구신속타격계획은 미국이 핵 및 상용무기 에 의거하여 전세계 임의의 나라를 반대하는 전 쟁을 벌리려 하고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군 사전문가들이 미국의 전지구신속타격계획을 새 로운 세계대전각본으로 평하고있는것은 우연하 지 않다.

미국의 새 전쟁책동은 군축과 평화를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범죄행위이며 국제적인 군비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위험한 망동이다.

미국이 전략타격수단들을 제멋대로 써먹으려 하고있는데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하고있다. 미국 이 동맹국들도 가림없이 정탐행위를 벌리고있는 판에 미국의 전지구신속타격계획을 수수방판할 나라가 어디에 있겠는가. 어느 나라나 그에 대한 대응책을 반드시 모색하게 될것이다. 그러한 움직 임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이것은 세계적인 군비경쟁을 의미한다.

지난 시기 쏘미 두 나라는 핵무기보유로 하여 호상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였다. 랭전후 전략공 격무기축감계획으로 로미는 군사적균형을 유지 하였다. 그러나 랭전후 군사적우위를 확보하는데 목적을 둔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구축과 전지구 신속타격계획은 형세를 바꾸어놓고있다. 미국 카 네기재단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전세계적인 신속 타격계획에 따라 개발하고있는 극초음속미싸일 은 자칫 잘못하면 로씨야의 조기경보체계에 의 해 잘못 인식되여 핵선제보복타격을 유발시킬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세계평화와 안정파괴의 주범, 군비경쟁을 몰아 오는 장본인인 미국이 무분별한 군사적망동에 매 달리는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미호전세력이 새로운 세계대전을 꿈꾸면서 저 들은 무사하리라고 타산한다면 그것은 오산이 다. 모험적인 군사적광기를 부리는 전쟁미치광이 들은 국제적인 규탄배격을 면치 못할것이다.

남조선괴뢰집권자

쟁이 세계도처에서 광범히 전

20일 재프랑스동포들은 빠리

학회, 종교단체성원들을 비롯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부정의

방법으로 권력의 자리를 차지

한 박근혜가 자기 혼자만을 위

한 정책을 실시하고있다고 규

죽음을 각오하고 정의를 실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남조선에서의 선거부정행위를

규명하고 재선거를 실시할것을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

들은 괴뢰집권자의 퇴진을 요구

한 동포들 그리고 프랑스인들이

에서 박근혜사퇴를 요구하는 집

의 부정선거를 규탄

하고 퇴진을 요구하

는 해외동포들의 투

는 폭압만행에 대한 치솟는 분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22일

조의 지도부성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5 000여명의 방대한 무

장경찰을 내몰아 민주로총본부

청사의 현관문을 함마로 까고

들이쳐 최루액까지 쏘아대면서

란동을 부리다 못해 130여명을

집단적으로 련행하는 천인공노

적수공권인 로동자들에게 완

전무장한 수천명의 살인귀들을

내몰아 야수적으로 감행한 류

혈적인 탄압은 력대 군부파쑈

깡패들이 저지른 전대미문의

민중대학살사건들을 그대로 재

현한것이다.

개되고있다.

회를 가지였다.

탄하였다.

여기에 참가하였다.

강력히 주장하였다.

할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직 업 총 동 동계급은 남조선의 민주로총본 로, 적으로 규정하고 벌린 괴뢰 부에 괴뢰경찰병력을 강제로 들 역적패당의 이번 강제진입란동 은 온 남조선땅을 증오의 도가 이밀어 로동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한 괴뢰보수패당의 치떨리

니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민주로총은 괴뢰패당의 야만 적인 탄압만행을 로동자전체를 적으로 보고 무자비하게 짓밟 괴뢰보수패당은 철도민영화를 으려는 선전포고로 락인하고 반대하여 파업에 일떠선 철도로 박근혜를 파면시킬 때까지 무 기한 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정식 선포하고 대중적초불집회 와 총파업, 100만대국민시국대 회를 비롯한 실제적인 투쟁에 돌입하였다.

괴뢰패당의 파쑈적폭거에 격 노한 《한국로총》과 야당들은 물론 언론계와 법조계, 종교계, 녀성계를 비롯한 각계의 시민사 회단체들과 청년학생들은 로동 자들의 투쟁에 적극 합세해나서 고있다.

그러나 박근혜패당은 로동자 들의 정의의 투쟁을 《불법》 파 업으로 매도하고 강경진압을 내

지금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로 가 아니라 군사작전의 대상으 하여 남조선 전지역을 살살이 뒤지며 파업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광분하고있다.

앙

중

위

이것은 극악한 파쑈독재의 근 성이 골수에 박히고 수천만 근 로대중을 파쑈통치의 노예로, 적으로 보는 반인륜적인 《유 신》 독재의 후예들만이 저지를 수 있는 야만행위이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없이 한줌도 못되는 매판독점재 초보적인 생존권과 민주주의적 벌들의 배를 불리우기 위해 선 권리를 위한 남조선로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참히 짓밟고 야 수적으로 탄압해나서는 괴뢰보 수패당의 파쑈적폭거를 공화국 북반부의 전체 로동계급의 이름 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남조선전역에서 세차게 타번 지고있는 광범한 근로대중의 총 파업투쟁은 괴뢰보수패당의 반 인민적인 로동정책과 《유신》 독재부활이 빚어낸 필연적결과 이다.

박근혜집권 1년도 안된 오늘 에 와서 남조선의 근로대중은 박근혜가 《대통령》 선거때 입

이 닳도록 뗘들어댄 《국민행복 시대》요, 《경제민주화》요, 《복지》요 뭐요 하는것들이 모 두 파쑈독재자의 정체를 가리우

리설에 불과하였다는것을 더욱 뼈저리게 절감하고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절대다 수 근로대중의 생존은 안중에도

거공약도 서슴없이 줴버리고 친 재벌적인 민영화정책을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려고 기를 쓰고 날 뛰는 괴뢰집권층의 악행을 저주 하며 투쟁에 궐기해나서고있다.

특히 남조선 각계는 이번 괴 뢰패당의 민주로총본부에 대한 강제진입란동이 1978년 야당 청사에 미친 야수와 같이 달려 들어 생존권보장을 주장하며 롱 성을 벌리던 애어린 녀성로동자 들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고 살 해한 박정희역도의 파쑈폭압만 행을 그대로 방불케 한다고 경 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파쑈독재의 가련하고 비참한 종 말의 시간은 바로 그날의 야만 적인 탄압만행으로 하여 더 촉 고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감언 진되게 되였다.

가증스러운 박정희 《유신》

《유신》 파쑈독재의 부활을 꿈꾸는 박근혜패당의 운명도 다 를바 없다.

력사의 주인인 근로대중을 등 진자들에게는 수치스러운 파멸 밖에 차례질것이 없다.

남조선의 전체 로동자들은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고 삶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온몸을 불 태우며 항거한 로동운동가 전 태일렬사의 뒤를 이어 괴뢰패 당의 반인민적, 반민주적악정 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 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려야 할

것이다. 온 겨레는 정의와 진리를 위 해 굴함없이 싸우는 남조선근로 대중의 투쟁을 언제나 변함없이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다. 주체102(2013)년 12월 27일

평 양

집

가 벌어졌다.

참가하였다.

시하였다.

19일 당국의 부당한 경제정책

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항의집회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진행된 집

회에는 수천명의 각계층 군중이

된 조치로 새해에 자기들의 생

활형편이 더욱 비참해지게 될것

이라고 하면서 이에 불만을 표

당국이 다음해 긴축예산안을

집회참가자들은 당국의 그릇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 허덕이는 미국에 운 명의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재정절벽에 부딪쳐 강압적인 세금인상과 850 억US\$의 예산자동삭감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 게 된 기막힌 처지, 국가채무한계선을 돌파한 1 7 조US\$에 달하는 국가채무, 그를 놓고 민주. 공화 량당이 개시한 피터지는 싸움, 돈줄이 잘리 워 정부가 부분폐쇄를 선언하기 바쁘게 일어번 진 공무원해고바람 등은 죽음에 가까와가는 환 자의 말기증상이다.

그 여파는 잦아들지 못하고 이해가 저물어가 는 시각에도 계속되고있으니 경제위기전염병에 걸려 옆침대에 누운 동맹국환자들의 짜증에 귀 가 먹을 정도이다.

벨지끄의 브류쎌에서 19일

유럽동맹의 부당한 경제정책을

반대하는 항의시위가 벌어

유럽동맹수뇌자회의가 열리

는것과 관련하여 일어난 시위에

는 수백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

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유럽

동맹이 근로자들의 로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할것

또한 뽀르뚜갈의 리스봉에서

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Λſ

## 상

고질병에 걸려도 단단히 걸렸다. 경제위기중환 자인 미국이 사체실로 옮겨가야 할 판이다.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다. 의사의 눈으로 미국 이라는 환자를 들여다보면 불치의 병원체는 세 계제패야망이다. 그때문에 미국은 침략과 전쟁이 라는 마약을 쓰게 되였으며 그것으로 하여 경제 위기발작증에 걸렸다. 이제는 마약에 중독될대로 되여 주기적으로 위기가 발작하는 페인이 되고 만것이다.

미국은 지금처럼 세계제패야망에 들뗘 침략과 전쟁책동을 계속 강행하다가는 얼마 못 가 담가 에 실려 사체실로 들어가게 될것이라는것을 명심 해야 한다.

있다.

채 일 출

리 현 도

세계적으로 심각한 전자제품오물처리문제 세계적으로 전자제품오물 처리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최근 유엔은 보고서를 발표하 여 2017년에 가서 전세계에서 배출되는 전자제품오물량이 6 540만t에 달할것으로 추산 되고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현 재의 배출량에 비해 33%나 더 많은것이라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 들면서 괴뢰경찰병력을 총동원 무고한 로동자들을 동족으로 로 토

하는 구호들을 웨쳤다. 재도이췰란드동포들도 이날 베를린에서 괴뢰집권자의 사퇴를

해외동포들의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다음날 카나다의 토론토와 영국의 런던에서 해외동포들 은 각각 집회들을 가지고 박근

혜퇴진을 주장하는 구호들을 웨치면서 괴뢰패당의 부정선 거를 단호히 규탄하고 남조선 에서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 의지를 피력 하였다.

22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진행된 초불시위에서 재미동포 들은 남조선에서 민주화말살로 하여 사회가 불안에 잠겨있다 고 하면서 민주화를 위해서는 박근혜가 물러나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광 범 투 쟁 히 전 개 이날 재미동포들의 투쟁은 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워싱톤에서도 있었다.

일 재미동포들 은 미국 로스안 젤스에서 《박 근혜가 퇴진할 때까지 투쟁하 자!》,《정보 원을 해체하 자!》고 웨치며 시위투쟁을 전 개하였다.

일한국민주통 일련합》은 일 본 도꾜와 오사 까 등지에서 피 뢰패당의 부정 선거를 단죄하

이에 앞서 19

같은 날 《재

선전활동을 벌렸다.

괴뢰패당의 부정선거 1년을 계기로 해외동포들 이 공동으로 구호를 제기 하고 련대투쟁을 세계 각 지에서 현속적으로 벌리기는 이 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한

### 일본을 위험한 경지에로 몰아가고있는 아베 신 화 통 신 이 중국 의

날을 가로막는 이러한 행위는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엄중히

위협할뿐아니라 일본을 위험한

경지에로 몰아갈것이라고 경고

통신은 아베정권이 주변위

협이라는 긴장한 분위기를 조

하였다고 통신은 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이 18일 《일본을 위험한 경지에로 몰아 가고있는 아베》라는 제목의 글

을 보도하였다. 통신은 최근 아베를 우두머리 로 하는 일본우익세력이 군비를 확장하며 헌법개정을 다그치고 있다고 하면서 17일 일본각료 회의에서 새로운 《방위계획대 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 그 리고 첫 국가안전보장전략이 채 택된데 대해 밝혔다.

보도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아 벗어나기 위한 구실을 찾는데 베가 현재 우익의 길로 더욱더 있다는것은 명백하다고 까밝 멀리 나아가고있다고 하면서 화 혔다. 통신은 중국사회과학원 일본 를 남에게 전가하고 자기의 앞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일본이 아베정권의 추동하에 지역패권 을 추구하고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로 되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만일 일본이 잘못을 깨닫지 못 하고 계속 대결에로 나아간다면 실패를 면치 못할것이라고 경고 작하는 목적이 전후체제에서 하였다.

### 협 조 여래 나 라 들 알제리와 까타르가 19일 강 또한 파키스탄과 모리셔스가

철공업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에 따라 까타르가 알제리

의 강철공장건설을 협조하게 된다.

같은 날 마로끄와 가봉은 불 법이주 및 국경횡단범죄를 반대 하는 투쟁에서 협조할데 관한 협정을 맺었으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지역나라들에 대 한 외세의 정탐활동에 공동으로 였다. 대처하기로 합의하였다.

23일 체육분야에서 협조를 확 대할데 관한 량해각서를 채택 하였다. 이에 앞서 22일 중국과 알제

리는 두 나라사이의 전략적동반 자관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합의 하였다. 에티오피아와 르완다는 최근 항공기술분야에서 협조를 발전

시킬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

【조선중앙통신】

편 집 위 원 회

¬¬312030 (정기간행물번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대회주의교양부 372-3528, 사회주의교양부 372-4328, 사회주의교양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